

현대불교 창간 2돌

“붓다정신 오롯이 숨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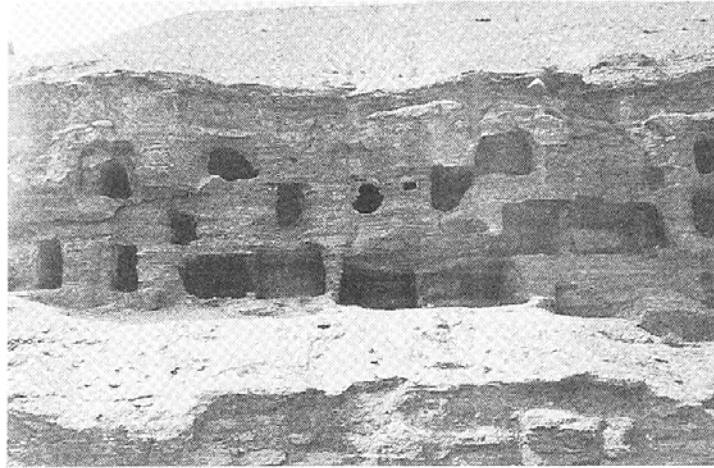


아유타야 유적지 타이의 중부인 방콕 북방 약 60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유적지. 이 아유타야 유적지는 7세기부터 8세기까지 조성된 불교유적지이다. 1424년에 발흥했다. 아유타야 건축은 크메르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종 모양의 큰 탑과 여러 층의 높은 테라스로 된 기단 그리고 기단에서부터 솟아오른 둥근 천정 등이 성스러운 옛 불교사원의 면모를 암시하고 있다. 벽화로 장식된 아유타야 사원의 기단은 현재 중요한 매장물을 안치한 예배소로 변했다. (태국·1991년 지정)



파할푸르사원 3세기부터 12세기까지 발전했던 불교사원 초기 유형. 파할푸르 사원은 인들을 중심으로 수행승들이 거주하는 벽이 트인 방들이 둘러싸여 있고 한쪽으로 출입구가 있다. '비하라'로 불리는 이 사원은 원래 인도에서 우기 동안 유행(遊行)생활을 하다가 힘들게 된 승려들이 거주하도록 세운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비하라의 안뜰이 성스러운 유물을 안치한 작은 탑과 여러 불상들이 놓이게 되면서 비하라는 신성한 장소로서의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승려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개의 비하라, 탑 그리고 불당 등으로 이루어진 마하비하라(거대한 사원)로 발전했다. (방글라데시·1985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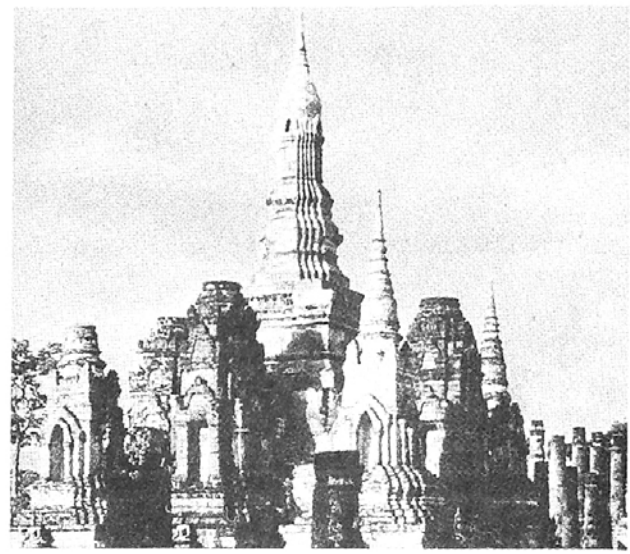
한 시대의 굴곡(屈曲)이 모두 투영된 유적을 담시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장엄함에 도취되고 승고함에 머리를 조아린다. 그곳엔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러한 유적과 유물을 보호·보존하기 위해 지난 79년부터 '세계의 문화유산'을 지정해 오고 있다. 지정된 문화유산은 원형보존은 물론 과학적인 복구를 통해 세계인의 보물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469건의 세계유산 중에서 불교유산은 1983년 아진타 석굴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 1996년 지정된 한국의 해인사 팔만대장경(판고포함)과 석굴암을 포함해 총 13건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2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이 위험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산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은 최근 가이산의 골프장 건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있는 우리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앞두고 불교관련 세계유산을 살펴보고 그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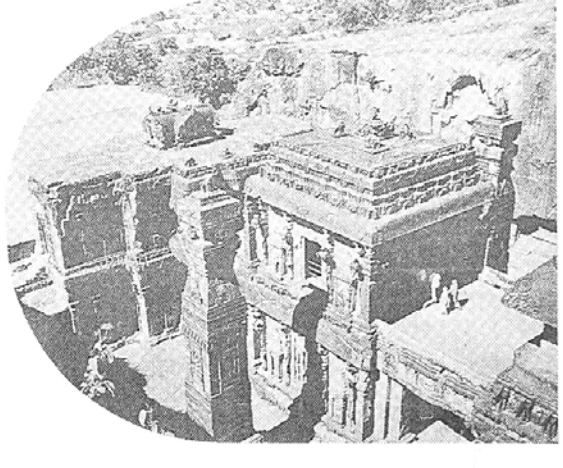
몽골토굴 고비 사막에 있는 몽골 토굴은 둔황 근처에 위치해 있다. BC.366년 30여개의 토굴로 시작해 600여개의 토굴로 발전했다. 이 토굴은 절벽을 깎아들어간 것인데 특이하게 토굴은 처음에는 수행승의 기본적인 생활만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시대가 흐를수록 불교관련 장엄물과 조각 등을 하나씩 추가하기 시작했다. 원나라 시대에 이르러 토굴의 형태는 더욱 발전해 중국 불교의 중심지로 받아들였다. 1368년 원나라가 쇠퇴하면서 몽골 지역의 토굴이 주춤거렸으나, 청나라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 사원지대로 각광받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장엄물과 조각은 원·청시대에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1987년 지정)



호오류우측 호오류우(법룡사)사는 일본의 나라시내에 600년경에 조성된 사찰이다. 법룡사의 불교유적들 중에는 고구려의 승려이며 화가인 담징(579~631)이 그린 금당벽화 '사불정토도'와 623년경에 제작되어 금당에 모셔진 '석가모니불과 두 보살' 등이 가장 돋보이는 불교유적이다. (일본·1993년 지정)



수코타이 유적지 타이 북서부 메남강 지류에 있는 유적지. 수코타이 왕조가 13세기 중엽부터 융성하면서 건축했던 불교사원이다. 이 유적지의 형태는 성소와 탑의 복합체의 중심의 높은 바닥에 봉헌된 꽃의 형상으로 건축됐다. 그리고 꽃의 형상 정상에는 8개의 다른 봉헌탑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봉헌탑 중심에는 수코타이 예술의 특징인 연꽃 봉우리가 조각됐다. 또한 수코타이 유적지 정면 입구에는 부처님의 생애가 회반죽으로 장식되어 있다. (태국·1991년 지정)



엘로라석굴 인도 북베이의 북동 약 3백킬로미터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석굴. 엘로라 석굴은 전장 3킬로미터에 걸쳐 불교·힌두교·자이교 등의 다종교 석굴군으로 유명하다. 총 34개의 엘로라 석굴은 동굴사원의 집단으로서 가장 큰 것이다. 이중에서 불교굴은 제1굴에서 제12굴까지 3세기부터 7세기경까지 조성됐다. 석굴 내부는 갖가지 조각과 장엄물로 장식되어 있다. (인도·1983년 지정)



포탈라궁 중국 사창 자치구(티베트) 라싸에 있는 유명한 궁성. 1645년 제5대 달라이라마 때 처음 건축되었고, 그후 증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궁성은 남북 길이 2백미터 동서 길이 3백미터이고 동·서·남쪽 각각에 3층 높이의 누각이 딸린 성문이 있다. 중앙 누각에는 대전, 달라이라마의 침궁, 섭정자와 달라이라마의 스승이 묵는 방 등이 들어 있다. 산 정상에 있는 건물은 동서로 총길이 360미터이고 높이가 110미터로 백궁, 홍궁, 사원 및 4개의 큰 외성(外城)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궁은 달라이라마가 거주하는 궁전. 이외에도 사당, 불전, 영탑전 등과 청황실이 달라이라마를 책봉한 금책과 금인, 대량의 진귀한 유물 등이 소장되어 있다. (중국·1994년 지정)

사진으로 보는 경전

벽화를 통해 경전을 읽는다

경전의 구절이나 내용에 맞게 벽화나 사진을 결합시켜 경전의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완전 칼라판

모든 사진을 칼라로 처리해 경전을 더욱 알기 쉽게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천수경 · 관세음보살보문품(근간) 불 · 보살의 원력과 발원문(근간)

학림 위음/신국판 칼라화보/값 각권 4,500원

500대원 석가모니불 지장경 장수멸죄경

운주사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군승장교 요원 선발

군포교를 짊어지고 나아가 군승법사님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선발일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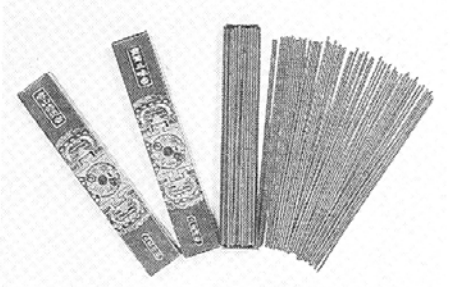
원서교부/접수	96. 10. 18 - 10. 24
면접시험	96. 10. 25(금) 14:00
신체검사/합격자발표	추후통보

- 응시자격 ■
1.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후 2년(학사학위 이상 : 96년도 졸업생까지)이 경과하고 군포교활동에 원력이 있으신 분.
  2. 일반 4년제 대학(학사학위) 소지를 졸업한 조계종 스님으로서 군포교 활동에 원력이 있으신 분.
-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임관시 연령 35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분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02)720-7060이나 육·해·공군 군승단(02)749-864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불기 2540(96)년 10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이성타

二載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눈이 따갑거나 목이 부어오르지 않습니다. 화장품이나 비누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향기는 깊고 고상합니다. 24가지 천연약재와 귀한 백단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설산수도향(雪山修道香)과 영취삼매향(靈鷲三昧香)은 불자님들의 건강까지도 생각합니다. 가까운 불교용품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